



NH모두안심재해보험, 익산원에농협서 전북 1호 가입

NH농협생명 전북총국(총국장 지광수)은 4일 출시된 농협생명 신상품 NH모두안심재해보험(무)에 익산원에농협 김봉하 조합장이 전북 지역 1호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농협생명 NH모두안심재해보험(무)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해를 폭넓게 보장하는 보험으로, 재해사망과 재해장애 등 주요 위험에 대비할 수 있고 응급실 내원 시 1회당 3만원 지급으로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력을 높인 상품이다. 여자 60세 기준 월 2천원 미만의 저렴한 보험료와 함께 인수상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누구나 쉽게 가입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김봉하 조합장은 "이번 신상품은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고 특히 농작업 외 재해에 대한 사고보장이 가능하여 농민과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상근 기자



남원 한달살기 게스트 하우스 3차 입주자 모집

남원시가 '한달살기 게스트하우스' 입주자 총 2가구를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2주간 3차로 입주 신청을 받고 있다.

입주자는 남원시에서 운영 중인 임시 거주시설인 주생 체재형 실습 마을에서 1개월간 거주하며, 귀농·귀촌 생활을 미리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입주자 선정은 신청서를 토대로 '그린대로' 귀농귀촌 누리집 및 남원누리시민 가입 여부와 더불어 신청자의 연령, 귀농교육 수료여부 등을 참고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새삶터정책팀(063-620-6365)을 통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도동동, 얼음정수기 설치·서비스 지원 시작

남원시 도동동 행정복지센터는 1일 1가구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폭염대비 취약계층 집중 돌봄 기간 운영을 위해, 최근 얼음정수기 설치업체 노비타(대표 임현택)와 업무협약을 체결, 얼음정수기 설치 및 서비스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건강·경제적 부담으로 정수기 설치나 유지관리가 어려워 장기간 방치되어 폐기 처분된 정수기 미사용으로 방치되거나, 온열질환 및 취약계층 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여성단체협의회, 얼음 생수 무료 나눔 행사

남원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은진)는 지난 2일, 남원 광한루원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남원의 매력을 알리고 쾌적한 관광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얼음 생수 무료 나눔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제공함으로써 남원의 아름다운 관광지와 문화, 역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남원누리 시민증 및 전북사랑도민증을 홍보하는 등 남원의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K-푸드 미래 인재 양성·기술 협력 선도'

하림, 전주대·호원대와 '글로벌대학' 상생협약



종합식품기업 (주)하림(대표이사 정호석)이 최근,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연합과 2025년 글로벌대학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주)하림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자사의 핵심 역량을 적극 투입하여 K-푸드 산업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주)하림과 양 대학이 '글로벌대학' 본지정을 통해 지역 기업,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지속 가능한 식품산업 생태계 조성 청년 인재 양성, 교육·연구 협력 확대 등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 혁신을 견인하는 상생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협력 분야로는 △지식 가능한 식품산업 관련 공동 연구 및 기술개발 협력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현장실습, 인턴십, 취업 연계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농축산물 기반 식문화 콘텐츠 기획 및 공동 프로젝트 수행 △글로벌 식문화 트렌드에 대응한 국제 협력 프로그램 공동 참여 △기타 글로벌대학 사업 목적과 (주)하림의 ESG/CSV 경영 철학에 부합하는 협력 사업 추진이다.

협약에 따라 (주)하림과 양 대학은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명시하고 역할을 분담했다. (주)하림은 자사의 강점인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현장 노하우를 중심으로 기여하고, 대학은 교육 및 연구 역량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협력은 'K-Life STARdum' 조성을 통해 구체화 된다. 2,000억 원 가치의 대학 랜드마크를 리모델링해 K-Food, K-Contents 등을 체험하는 실습 거점을 만들고, 이곳에서 나온 학생들의 성과물을 학교기업 'The HATCH'를 통해 사업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림은 이 과정에서 자사의 인프라와 노하우를 제공하며 학생들의 실무 역량 강화와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하림 정호석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하림이 가진 현장의 전문성과 대학의 우수한 인재 및 연구 역량이 만나 K-푸드 산업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매우 의미 있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은행, 전주지역 다문화가족 위해 1억원 후원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전주지역 다문화가족들이 신나는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1억 원을 후원했다.

전주시와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4일 전주시장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백종일 전북은행장, 오현권 부행장, 이해경 전주시가족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가족 아동들을 위한 여름방학 '다다캠프(다문화로 온 문화캠프)'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JB금융그룹이 지난 2023년부터 핵심 사회공헌 사업으로 추진 중인 다다캠프는 여름·겨울방학 기간에 다문화가족 학생들을 대상으로 꿈과 진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120명의 다문화가족 아동이 캠프에 참석했다.

올해 여름방학 캠프는 정읍에 소재한 JB금융그룹 연구원인 아이유를 캠프에서 전주시 가족센터와 연계해 전주지역 다문화가족 아동 80명을 대상으로 3박 4일 동안 △JB플랫폼 금융교육 △진로탐색 프로그램 △액티비티 활동 등 다채로운 교육과 체험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백종일 전북은행장은 "아동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 더불어 실질적인 체험 교육을 통해 서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전주시와 전주시가족센터에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JK글로벌·위드인 사람과함께, 군산시에 드림장학금 전달

군산시는 (주)JK글로벌(대표 김기웅), (사)위드인 사람과함께가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위한 드림장학금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번 드림장학금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마음속 역할을 하도록 고등교육 졸업 시까지 매월 20만 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전달식에 참석한 (주)JK글로벌 김기웅 대표는 "경제적 지원을 넘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물질양면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위드인 사람과 함께 김대호 대표도 장학금을 패킷한 (주)JK글로벌 김기웅 대표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단체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장학금을 기탁해주시는 JK글로벌 대표님과 도움을 주신 (사)위드인 사람과 함께 대표님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북대 치과대, 김제시 취약계층 아동들 위한 의료봉사 펼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최근 전북대학교 치과대학(학장 유미경)이 김제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봉사는 지난 6월 5일 시와 전북대학교 치과대학이 체결한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전북대학교 의료진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및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200여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레진수복, 유치발치, 스켈링, 불소 도포 등 다양한 치료 서비스와 구강 교육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미래의 치과 의사로 일할 학생들이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전북대학교 치과대학은 김제시, 전주시, 베트남 후에대학교 등에서 의료봉사를 추진하고 학술교류를 하는 등 평소 아동보건 향상에 힘쓰고 있다.

유미경 전북대학교 치과대학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아동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아동 보건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미화 교육가족과장은 "의료 소외계층에게 경제적 부담이 큰 치과 진료 봉사활동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김제=곽도태 기자



전북농협, 팜스테이마를 활성화 SNS 이벤트 진행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이 농촌의 아름다움과 정겨움을 체험할 수 있는 전북 팜스테이마를 활성화를 위해 최근 전주한옥마을알매에서 SNS를 활용한 이색 홍보에 나섰다.

이번 이벤트는 전북농협 팜스테이마의 농촌 체험 관광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오프라인 방문객을 온라인 홍보채널로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대표 팜스테이마를 5곳을 선정해 안내장을 나눠드리고,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farmstay_jonbuk)을 팔로우하는 관광객들에게 사은품을 제공하여 호응을 유도했다.

농강스의 대표주자인 팜스테이마들은 도심에서 벗어나 농가민박 등에서 자연과 함께 재충전의 시간을 갖으며, 지역 농산물로 만든 건강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오상근기자



진안군청 공직자 2명, 진안사랑 장학금 기탁

진안군청 한재길 행정복지국장과 박동현 안전환경국장은 4일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장학금 기탁은 진안군청 서기관으로 승진한 아들이 지역 사회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진안군의 미래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재길 국장은 "진안의 아이들은 이 지역의 미래를 이끌 어갈 주역이다"고 밝혔다.

박동현 국장 또한 "지역사회에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게 됐다"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동향면 박천창 씨, 진안사랑 장학금 기탁

진안군 동향면 박천창(진안고협동조합 대표) 씨가 지난 2일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특히 이번 장학금 기탁은 지난해 12월에 아든 두 번째 기탁으로 딸의 카이스트 대학원(항공우주전공) 입학에 기념하는 의미와 진안의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박천창 씨의 깊은 뜻이 모여 이번 장학금 기탁으로 이어졌다.

전춘성 이사장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잊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는 박천창 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기탁 해주신 장학금은 지역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시보건소, 제1형 당뇨병 지원사업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제1형 당뇨병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1형 당뇨병'은 면역체계 이상으로 췌장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체내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자가면역 질환이며, 주로 소아나 청소년기에 발병해 매일 인슐린 주사와 당도 관리기기를 이용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지원 대상은 남원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제1형 당뇨병 환자로, 19세 미만은 전체, 19세 이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지원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기자

